

테마칼럼

여성세계

신지브리콜

김재의 논

한인 양기

아이를 지워버리는 사회



김신명숙 <작가>

최근 서울시 한 구청의 보건소에서 계약직 의사로 근무하던 한 여성은 이 보건소 신규 의사채용시험에 응시했다가 떨어졌다.

그녀는 출산을 40일 가량 앞두고 면접을 봤는데 면접관은 업무관련 질문 대신 출산과 관련된 질문을 집중적으로 했고, 곧 출산을 앞둔 사람이 의사 채용에 응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얘기를 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노동부가 올해 1·4분기 산전후 휴가자 1천여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64%가 육아휴직을 희망했지만 그중 34%는 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유는 직장분위기, 복귀불안 등 직장 내부문제가 압도적이었다. 모성을 보호하겠다고 번드르하게 만들어놓은 법 제도가 현실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출산을 이유로 퇴직을 강요받거나 법에 보장된 권리를 할 수 없이 포기해야 하는 일이 아직도 우리주변에 비일비재하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여성은 온전한 노동자로 대접받고 있는가?

‘일하는 엄마’는 죄인

근대사회는 공과 사를 엄격하게 구분하면서 공적인 영역은 남성들에게, 사적인 영역은 여성들에게 할당했고 이에 따라 성별에 의한 분업이 고착화됐다.

밖에 나가 일하고 돈벌어 오는 일은 남자가, 집안에서 살피고 애 키우는 일은 여자가 전담하는 것으로 여남관계가 설정되면서 집밖의 공적 세계는 남자들의 가치와 생활양식에 맞게 형성될 수밖에 없었다.

페미니즘은 여자들 역시 남자들과 똑같은 인간이자 시민으로서 권리가 있다는 각자에서 출발했다. 여자들 역시 충분한 교육을 받고 직업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투쟁한 결과 현재 우리 사회에서도 직업활동을 하는 여자들은 상전벽해라고 할 만큼 많아졌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남자들이 그들에 맞게 만들어 놓은 사회체제는 거의 바뀐 게 없다.

회사가 필요로 하는 인간은 여전히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자기시간을 온전히 회사일에 쓸 수 있는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인간, 즉 남자가거나 미혼의 여자에 국한돼 있다. 그 때문에 지금도 많은 여자들이 임신이나 출산과 함께 각종 불이익에 직면하게 되고 일이나 가정이나의 딜레마적 양자택일에 내몰리게 되는 것이다.

과거에는 여자들이 양자택일의 현실에서 가정을 주로 선택했다. 그러나 요즘은 일을 우선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그 결과 중 하나가 바로 심각한 저출산 현상이다. 엄마나 아내로서의 삶이 아니라 자기자신으로서의 삶을 우선하겠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저

인 출산율을 높이려면 무엇보다 공과 사를 구분해 남성과 여성의 영역으로 할당해 놓은 구조부터 문제삼아야 한다. 아이 키우는 일이 더 이상 여자들이 사적으로 전담할 일이 아니라 여남이 함께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사회적 문제라는 것, 따라서 그 문제를 사회에서 공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걸 하루 빨리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

시각의 변화가 있어야...

가부장제 사회에서 ‘일하는 엄마’는 태생부터가 죄인이고 그 자체가 모순이다. 이렇게 힘든 모순적 상황을 풀어 여성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직장인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육아와 가사로부터 자유로운, 사용가능한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일을 위해 쓸 수 있는 남성’에서부터 ‘직장일 뿐 아니라 육아와 가사도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감당해야 하는 여성과 남성’으로 근본적인 시각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출산을 극복하려면 무엇보다 직업세계에서 아이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

지금처럼 철저히 아이의 존재를 지워버리면 여자들도 따라서 아이를 지을 수밖에 없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대통령이 직접 나선 여수엑스포 유치

노무현 대통령이 2012세계박람회(엑스포) 여수유치 의지를 재확인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15일 보고회에서 “유치 활동을 정기적으로 직접 점검하겠다”며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역할분담을 통해 박람회 유치를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범 정부 차원의 유치노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지난 2002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실패한 원인을 분석해 달라는 발언이다. 2010세계박람회 유치가 나선 여수시는 당시 최종투표에서 중국 상하이에 20여표 차로 아깝게 패배한 경험이 있다. 과거의 실패 원인을 따져 엑스포를 유치해내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실패 원인은 복잡할 수밖에 없다. 중국과 한국의 외교력 차이, 여수시의 낮은 인지도, 열악한 사회간접자본 등을 꼽을 수 있다. 정치권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국회 차원에서 지원특위를 구성

했지만 대통령선거에 매달려 엑스포에는 관심조차 없었다. 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지 못하면서 찾아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 국민들이 88서울올림픽이나 2002월드컵과 같이 하나로 뭉쳐 유치전에 나섰다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현재의 상황도 2002년 당시에 비슷하다. 2012세계박람회 개최지는 내년 12월 결정된다. 퇴임을 준비해야 하는 노 대통령의 입지는 약화될 수밖에 없고 정치권은 다시 대선정국에 빠져들게 된다. 이같은 상황은 국가적 역량을 분산시켜 엑스포 유치를 약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실패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개인이나 사회, 국가의 미래가 있을 수 없다. 정부는 실패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유치 활동에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엑스포 유치의 성패는 정부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정부, 대북 인권 결의안 ‘찬성’ 주목된다

정부가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 ‘찬성’으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번 결의안 인권신장에 기여하는 것과 함께 핵심항 이후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북한과 국제사회의 인권분야에서의 대화와 협력을 구체적으로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3년부터 세 차례 실시된 유엔의 대북 인권결의안 표결에 기권 또는 불참했던 정부가 이번에 찬성으로 선회한 것은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 차원에서 본다면 매우 바람직한 조치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유엔사무총장까지 낸 나라에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에 대해, 그것도 동족인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를 언제까지나 몰라라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북한도 유엔의 인권 개선 주문을 공개적으로 요구한다면 남북관계의 불안정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 대북 인권결의안에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인권문제 대응이 정치적 고려에 따

라 흔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차이에 남북 접촉과 북핵과는 별개로 북한 인권문제를 분명히 지적하고 인권유린 실태를 더 이상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분명하게 전해야 한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유엔의 인권결의안을 대북 적대적 정책의 하나로 간주해 온 북한의 반발과 이에 따른 남북관계 냉각 등 상당한 부작용도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는 인권보조 및 증진이 아말로 인류의 보편타당한 가치라는 사실을 북한에 인식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유엔사무총장까지 참여한 참여와 포용정책의 양립 가능성을 잘 헤아려 남북관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남북화해 기초를 흔들러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한도 유엔의 인권 개선 주문을 계기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려는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無等鼓

현태판과 아리아게 만(灣)에 둘러싸여 있는 사가현(佐賀縣)은 일본 내에서도 손꼽히는 수산업 선진지다. 어업 생산량은 연간 3만t을 웃도는데, 참돔·넙치·오징어·방어 등이 주 어종이다.

사가현의 수산정책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해양목장 사업이다. 센터 측은 지난 92년부터 참돔과 넙치를 대상으로 먹이를 줄 때 음향탐지 훈련을 시키고 있다. 파블로프(I.P. Pavlov)의 ‘조건 반사(條件反射)인 셈이다. 이 훈련은 물고기가 10cm 크기가 될 때까지 계속된다.

센터 측은 또 3천만 엔을 들여 바다 한가운데 증풍기를 설치했다. 음향기기의 영향 반경은 2~3km로 치어 때 들러왔던 참돔은 소리를 수중에 전파시켜, 물고기들이 찾아오게 한다. 음향훈련을 받은 물고기의 실 어획량은 10만 마리당 평균 5% 정도. 자동 해황 관측장치·어군탐지기 등을 갖춘 조사선들이 각종 정보를 센터로 전송하고 있다.

정기태 사회1부장 meonsan@kwangju.co.kr

음향 훈련



이 한국에 도입됐다고 한다. 제주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체장 8cm의 어린 돌돔 가두리에 포식자인 참돔 세 마리를 함께 넣어 달아나는 훈련을 시켰다는 것이다. 수중 스피커를 통해 300Hz의 음향을 내보낼 때마다 먹이를 공급하는 방식도 병행했다는 소식이다.

수산화제는 어린 물고기를 바다에 직접 방류할 때 초기에 죽는 감모율(減耗率)을 20%로 추정한다. 먹이를 찾지 못해 굶어 죽거나 큰 물고기에 잡혀 먹히기 때문이다.

연구소 측은 그러나 훈련을 거친 돌돔의 감모율이 절반 가량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과가 좋을 경우 다급바리-

기고

송계축



주변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여이 감행된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반도 주변 정세는 불안의 안개 속에 휩싸였다. 중국, 일본, 미국 등 각 나라들은 자국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려 하고 있지만 정작 가장 위험에 빠진 것은 바로 우리나라, 우리 국민이라고 할 것이다.

이런 불안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일본 우경화를 선도한 고이즈미에 이어 일본 총리가 된 아베 신조는 자신의 임기 안에 평화헌법을 개정하겠다고 한다. 자위군 보유와 집단적 자위권을 골격으로 하는 개헌 초안이 이루어졌다고 하니 실로 우리를 금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 일본의 우경화 등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 일본 제국주의

광복 후 광복회 등 민간단체가 주관하여 추모행사를 거행하여 왔으나 1997년 5월 9일 정부기념일로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민족의 얼을 끊으려는 일제의 한글 말살정책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가족보다 민족을 먼저 생각했던 순국 선열들에 의해 오늘에까지 면면히 이어져오는 한민족의 얼은 우리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영원히 계승될 것이다.

우리는 현재 영원한 적도, 영원한 아군도 없는 냉혹한 국제 사회의 현실 속에서 살고 있다. 이런 패일수족 한민족의 얼이 이어져야 한다는 신념 아래 자신의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린 안중근, 윤봉길 등 순국 선열들의 독립정신과

순국선열의 날을 아십니까

에 의한 불행한 과거가 있는 우리들로서는 이런 패일수족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을 기억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다잡아야 함에도 순국선열의 날에 대한 관심이 너무 적은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

일제에 침탈당한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항일투쟁 과정에서 순국한 선열들의 얼과 위훈을 기념하고자 1939년 11월 21일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대한제국의 국권이 실질적으로 침탈당한 을사조약(1905년)이 체결(勅結)된 날인 11월 17일을 전후하여 많은 분들이 순국하였으므로 이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순국한 선열들의 독립·희생정신을 기리며 추모하기 위한 행사로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 모두가 나라 사랑의 마음을 키워야만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한 단계 뛰어넘는 참된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을 것이다.

해마다 11월 17일 백범기념관(효창공원 내)에서는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열린다. 올해도 오전 11시에 기념식이 열린다. 사랑스런 아이들의 손을 잡고 기념식에 참석해 아이들의 가슴에 한민족의 얼을 심어 주는 것이 아이들을 위한 참된 공부가 될 것이고 여의치 않다면 실질적인 국권 침탈일이라고 할 수 있는 을사조약 체결(勅結)일을 순국선열의 날로 제정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의미를 이 나라를 이끌어 갈 미래의 주역들 가슴 속에 각인시켜 주는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 <광주지방보훈청장>

개사료값 보다 낮은 쌀값... 농사 지을 맛 안나

농촌에 사는 아버님이 병원 치료를 위해 광주로 올라와 할인 마트를 들렀는데 우연히 개 사료 파는 매장에서 4kg짜리 개 사료 값이 1만6천원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현재 쌀값은 80kg 한가마가 15만원 정도다. 쌀 1kg당 가격을 따져보면 개 사료값은 거의 2배에 이른다. 개사료값이라고 해서 무조건 쌀값보다 싸야 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요즘 FTA에 따른 시장 개방 등으로

로 농민들은 죄다 죽을 맛인데 개 사료값과 쌀값이 비교되는 현실에서 농사를 짓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가.

이같은 현실 때문에 일부에서는 쌀 정책에 대해 정부가 무관심한가 개사료값이 쌀값보다 비싼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한다. 농민들이 쌀농사 대신 개사료나 만들어 파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할까 두렵다.

▲이승열·목포시 옥암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 지급합니다.

의료 칼럼

문계혁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날씨가 겨울 같지 않고 따뜻한 편이었는데 최근 들어 매우 쌀쌀해지고 앞으로 더욱 추워질 것 같다. 우리 몸은 계절이 바뀌에 따라 신체의 반응상태나 적응력도 변화가 오는데 그에 따라 병에 걸리기 쉽기 때문에 특히 어린이나 노인 분들에게서는 겨울철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겨울철에 특히 많아지는 질병은 독감, 감기, 천식 등을 포함한 호흡기 질환이 가장 대표적이고, 다음으로 방관질이나 눈으로 인한 사고, 갑작스런 기온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뇌졸중, 요즈음은 많이 줄었지만 동상이나 동창 등이 있고, 최근 알려지기 시

하고, 섬모의 활발한 운동을 유지하게 한다. 셋째, 청결과 휴식이다. 자주 손을 씻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인데, 겨울철 감염을 감소시키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다. 대부분의 감기 바이러스가 감기에 이환된 사람의 손에서 책상이나 문의 손잡이 등에 옮겨져 있다가 그걸 만진 사람의 손으로 옮기고, 그 손에 의해서 다시 코나 입 등의 점막을 통해 감염되기 때문이다.

넷째,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사고와 활동인데, 겨울을 피하기보다는 즐기고 추위와 싸우라는 것이다. 흑한만 아니라면, 운동과 외출을 규칙적으로 유지하여 몸의 근육과 신경에 활력을 불어

겨울철 건강관리 이렇게 하자

작한 겨울철 우울증이 있다. 이런 질환이 많아지는 데는 겨울의 독특한 환경적 특성이 작용하는데, 일조량의 감소로 인한 추위와 건조함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외부적 변화 조건과 신체의 반응들 그리고 건강관리의 원칙과 더불어 겨울철을 건강하게 나기위한 방법들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 적당한 난방과 함께 환기를 자주 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된다. 많은 빌딩들이 현대화되면서 화학제품들을 실내 장식이나 가구에 사용하고 있고 밀폐의 정도가 심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빌딩증후군’(밀폐된 공간에서 생기는 두통·현기증)의 경우 적절한 환기로 인하여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다.

둘째, 겨울철의 절대적인 필수품인 가습기의 사용이다. 가습기는 실내의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시킴으로써 우리 호흡기 점막이 충분한 수분을 머금게

넣어주고, 겨울철에만 즐길 수 있는 스포츠나 놀이에 참여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겨울에 증가하는 겨울철 우울증의 경우, 상당부분 햇빛의 조사량이 떨어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 심한 우울증의 경우는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가벼운 우울 증상은 이러한 활동과 긍정적인 사고로서 충분히 예방하고 치료가 가능하다.

끝으로 눈이 오고 방관질이 되면 노인들의 미끄러짐이나 낙상으로 인한 골절예방에 유의하여야 한다. 노인들은 대부분 골다공증이 조금씩 다 있는데, 넘어짐으로서 척추골 및 기타 뼈의 골절상을 입을 수 있다.

노인들에게서 이러한 골절상은 오랫동안 거동불능을 불가능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이는 생명을 단축시킬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될 수 있음을 아시고 조심하시는 것이 상책이다.

<광주 우리병원 원장>

소화전 소방호스 노즐 잇단 절도... 화재팬 속수무책

얼마 전 건축업자로부터 새 건물을 지어 소방준공 동의를 낸 뒤 소방서의 점검을 기다리고 있는데, 절도범들이 침입해 총마다 있는 소화전에서 소방호스 끝 노즐을 자꾸 떼어 간다는 말을 들었다.

이 노즐은 ‘관창’이라고 불리우는 것으로, 황동으로 만들어져 가격이 아주 비싸기 때문에 절도범들이 고가에 팔아넘긴다는 것이다. 한 두 개 정도면 보충하겠는데 1층부터 꼭대기층까지 모든 노즐을 떼어가는 바람에 결국 노즐을 모두 떼어 경비실에 보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 상태에서 자칫 화재가 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크지만 절도범들 때문에 그럴 수도 없다는 것이다.

개인 건물뿐만 아니라 공공시설물인 터널 내 소화장비도 자주 도난을 당할 경우 떼어 놓지 않겠는가.

공공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소방기구를 훔치는 행위는 그 어떤 절도보다 더 엄격히 처벌했으면 한다.

▲김계현·광주시 광산구 등림동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